

위치만 표시 통제 불가능 '반쪽짜리 족쇄'

성폭력 대한민국의 대로는 안된다

성폭행법 화학적 거세 강화 설득력

형량 높이고 시스템 보강 예방해야

3 전자발찌론 못막아

최근 나주 여자 초등생 성폭행 사건을 비롯해 상식 밖의 성범죄가 잇따르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더욱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사형 등 사회에서 영구적인 격리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사형은 사실상 합당하며 전자발찌 제도를 보다 강화하는 것과 함께 성범죄자에 대한 약물 치료 등의 새로운 대책을 추진 중이다.

실제 정부는 지난 27일 세종로 정 부중양청사에서 '성폭력 등 사회안전 저해범죄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위치추적법'을 개정해 ▲전자발찌 실시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유 및 매달 4~5차례 면담 ▲야간 등 특정시간대 외출제한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논의했다.

이 밖에도 재소자 및 출소자의 사회 적응 지원 강화와 사회소외자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민들과 전문가들은 전자발찌 제도를 강화하는 것만으로 재범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동안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재범을 저지르거나 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는 등 허점을 노출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21일에는 서울 광진구 중곡동 한 주택 옥탑방에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서진환(42)이 주부 A(37)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쳐자 흥기로 잔혹하게 살해했다. 그는 지난 2004년 서울에서 20대 여성

을 성폭행한 혐의로 7년을 복역한 뒤 지난해 11월 만기 출소에 전자발찌 7년 부착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그는 이미 3차례의 성폭행 등 모두 13차례의 전과가 있었다.

광주에서도 지난해 10월30일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보호관찰 대상으로 감독을 받고 있던 김모(30)씨가 출소한 달 만에 4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사실상 전자발찌가 위치 정보만 표시해주지만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물리적인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물리적인 통제를 위해서는 1대 1 관리시스템이 필요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다. 또 이번 나주 성폭행 사건의 경우는 '집'이라는 특수한 장소에서 남

치당하는 등 방법의 한계를 뛰어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성범죄자들에 대한 형량을 대폭 높이고, 약물 치료와 화학적 거세 등의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최근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소의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방치된 아이들에 대한 지원 인프라를 강화해야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광주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기존의 민생치안의 방식으로는 잇따르는 성범죄에 대응하기에 역부족"이라며 "보다 전문화된 시스템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와 가정, 국민이 함께 내 주위의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보살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김영민기자 kki@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08분 해질 18시 54분 달돋이 21시 14분 달질 10시 25분

오전 한때 빗방울

지역	기온
광주	흐리고가끔비 21/27℃
목포	흐리고가끔비 20/26℃
여수	흐리고가끔비 22/26℃
나주	흐리고가끔비 20/28℃
완도	흐리고가끔비 21/27℃
구례	흐리고가끔비 20/28℃
강진	흐리고가끔비 21/27℃
해남	흐리고가끔비 20/27℃
장흥	흐리고가끔비 21/27℃
순천	흐리고가끔비 20/27℃
영광	흐리고가끔비 20/27℃
진도	흐리고가끔비 20/26℃
전주	흐리고가끔비 20/27℃
군산	흐림 20/25℃
남원	흐리고가끔비 19/27℃
옥산도	흐림 21/25℃

바다	풍향	파고	식중독지수	지외선지수	피부질환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1.0~2.0m	경고	보통	높음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1.0~2.0m			

날짜	6(목)	7(금)	8(토)	9(일)	10(월)	11(화)
날씨	☀	☀	☀	☀	☀	☀
최저/최고	16/28	18/28	21/27	21/28	22/27	21/28

조선대 또 다시 갈등 양상

"이사회 부총장 임명은 규정 위반" 반발

총장 선출로 1년여 지속된 학내 분란을 끝낸 조선대가 부총장 선출을 둘러싸고 또 다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조선대 이사회가 지난 3일 총장 선임과정에서 서재홍 1순위 후보에게 강동완 2순위 후보를 부총장에 임명하라고 요구해 구성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서재홍 선임 총장은 4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부총장 임명에 대한 이사회 요청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사회가 구성원간 갈등을 끝내고 화합차원에서 총장선거 2위인 강교수를 부총장으로 권유했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대학측도 전날 이사회 직후, 보도자료를 내 강교수를 부총장으로 선출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부총장 임명은 대학 정관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사회와 서 신임총장이 밝힌 '화합 차원'이라는 취지와 상관없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지적이다.

부총장은 학교법인 정관 49조에 의해, 총장이 인사위원회 동의를 얻어 임명토록 돼 있다. 이번 부총장 선임은 총장 선임과정에서 이뤄져 시기상 부적절했고, 이사회가 정관을 무시하면서 월권을 한 상태여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4일 오전까지 이사회의 부총장 선임이 적절했다고 주장하던 대학 법인은 오히려 보도자료를 통해 "부총장 임명은 서 교수가 총장으로 임명된 후, 정관·규정에 의거 강 교수를 부총장으로 임명할 것이다"고 한발짝 물러섰다. /채화중기자 chae@kwangju.co.kr



4일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가 치러진 광주시 남구 대평영고에서 학생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문제를 풀고 있다. 광주 재학생·재수생 2만2510명을 비롯해 전국에서 67만1750명(언어영역 기준)이 응시했다.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수리 어렵고 언어 다소 쉬웠다

9월 모의수능 분석 결과

4일 치러진 모의수능은 지난 6월 모의수능보다 대체로 어려워져 지난해 수능과 비슷하거나 다소 쉬웠던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수능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 주관한 2013학년도 대학수학

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가 4일 전국 2127개 고교와 273개 학원에서 응시생 67만1750명(언어영역 기준)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광주의 고교 진학부장협의회장인 남정현(정광교) 교사는 "언어영역은 지난 6월 모의 수능과 비슷해 학생들이 쉽다고 느꼈을 것"이라며 "수리"가'의 경우 난이도 높은 문제가 2~3

개 출제됐고, '나' 영역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지난해 워낙 쉽게 출제돼 '물수능' 논란이 일었던 외국어 영역은 이번 모의 수능에서 어렵게 출제됐다.

입시 전문가인 진학사 관계자는 "이번 모의수능은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돼 졸업생에게는 평이하게 느껴졌지만 재학생들은 다소 어렵다고 느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도가니' 성폭력 피해 관련 국가 상대 손해소 첫 재판

방청인 위한 수화통역 안돼 법정 한때 술렁

영화 '도가니'로 널리 알려진 인화 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청구소송 첫 재판에서 청각 장애 방청객들의 수화 통역 요구를 재판부가 기각해 한때 법정이 술렁였다.

영화에서도 법정에 나온 청각 장애인들의 수화 요청을 재판장이 무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실제 재판에서도 재연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성지호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오전 열린 1차 변론기일에서 원고 대리인은 청각 장애가 있는 방청객을 위해 수화를 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 측은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원회에서 10여명이 재판을 방청하러 왔다. 사법서비스 측면에서 재판을 수화로 통역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방청객은) 원고도 아니고 대리인도 아니기 때문에

불필요하다. 나중에 원고가 출석해 원할 경우 허락하겠다"고 답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당사자가 청각 장애인이면 반드시 통역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방청객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다. 원고 대리인 측에서 사전에 협의한 적 없이 법정에서 즉석 신청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애초 이 재판은 광주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해달라는 피고 측 요청을 서울중앙지법이 받아들여 서울에서 열리지 못할 뻔했지만, 원고 측의 항고를 심사한 서울고법이 지난 7월초 1심 법원의 결정을 취소하고 원래대로 서울에서 재판을 열도록 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11월13일 오전 11시 20분. /연합뉴스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마크호남을대표하는 여행브랜드 사진

조이 투어 JOY TOUR CO.,LTD

대표전화, (062)234-322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5가 151-1번지 FAX (062)234-3141

대표이사 최금환
http://www.joy2000.kr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추석연휴기간 단회

9월 29일(토) ~ 10월 3일(수)

무안 ↔ 소림사(정주) 직항전세기

정주/낙양/서안/태항산/소림사 **세포함**

- 중국 무술의 본원지 소림사(승산)여행
- 유네스코 지정 세계 지질공원인 운대산(AAAA급 관광지)여행
- 세계7대 불가사의의 진시황병마용, 진시황릉관광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 세계지질 공원

선종의 발상지

진시황제릉을 지키는 병마용

예약문의 **조이투어 062)234-3222** / 자유투어 광주시청점 062)382-3300 / 자유투어 목포점 061)284-1000 / 자유투어 전주점 063)284-6868 / 자유투어 광양점 061)792-7222 / 장흥 경남전투어 061)864-7883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철저히 준수합니다.
*2억 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금액 기입입계
*공통점: 여행 경비 1인 기준, 여행자보험 가입(해외상용: 1억원, 국내상용: 5천만원), 관광진흥세법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경비없음(단, 기사기대외 봉사료, 선착박람회 별도) *최소 출발인원은 상용에 따라 다름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약시 계약서(회사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